

신년사

: 대한산업보건협회 회장 백헌기

아름답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상서로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백헌기

대한산업보건협회
회장

청렴한 백(白)의 기운과 근면한 소(丑)의 기운이 한데 어우러지는 신축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소는 인내력이 강하고 근면 성실함으로 표현되는 동물입니다. 살다 보면 작은 꿈을 차곡차곡 이어가는 것이 큰 꿈으로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아름답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상서로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와 힘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감염병 예방이 모든 이들의 최우선의 과제이자 목표로 자리 잡은 지금, 사업장 안전보건관리를 담당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방역업무가 새로운 과제로 주어졌습니다.

건강한 일터는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상징하며, 어떤 곳에서는 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유일한 희망이기도 합니다.

일터에서의 전염병 확산은 국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으로의 확산, 학교로의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로이기에 짧은 시간 내로 전국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일터에서의 방역을 수차례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사업장 방역을 함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의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야 노동자가 건강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새날은 우리에게 희망과 설렘을 갖게 하는 가슴 벅찬 날입니다.
비록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지치고 어렵더라도 이 새 아침,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기라는 말에는 기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현명하게 대처하면 더 큰 도약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내일은 분명 오늘보다 훨씬 나은 것이라는 믿음으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신축년 새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1년 내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